

2026-2 함께하는 전공 나침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

Part I

이름이 여러 번 바뀐 전공

“미디어스쿨” 이름의 역사

■ 1997

- [신문방송학과]

■ 1998

- [언론정보학부]
 - 언론 전공
 - 방송통신 전공
 - 광고 전공

■ 2001

- [언론정보학부]
 - 언론 전공
 - 방송통신 전공
 - 인터넷미디어 전공
 - 광고 전공

■ 2014

- [언론정보학부]
 - 언론 전공
 - 방송통신 전공
 - 디지털콘텐츠 전공

■ 2016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전공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

■ 2018.9

- [미디어스쿨]
 -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전공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

“미디어스쿨” 이름의 역사, 그리고

I 2026.3

- [미디어스쿨]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은 가장 최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왜 자꾸 바꿀까요?

조선왕조실록 연구

100년 넘게 연구 대상이
한 글자도 늘지 않았다



미디어 연구

신문
+ TV
+ 인터넷
+ 소셜미디어
+ 생성형 AI

배움의 대상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된다

이름이 바뀌는 건 낡아서가 아니라, 살아 있어서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은 가장 넓은 이름

흔한 오해

“기자 되는 전공 아니가요?”

“신문도 안 보는 시대에

왜 가요?”

실제로 배우는 것

저널리즘 + 방송 + 영상 + 스피치
+ 데이터 + AI + ...

그 시대 가장 힘센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과 사회를 읽는 학문

1학년 때의 꿈이 바뀌어도, 전공을 다시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Part II

무엇을 배우나요?

숫자로 보는 커리큘럼

78

과목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생의 선택지
(전공 49 + 공통 29)

122

과목

코드웨어로 옆 전공까지
열면 → 전부
내 수강 목록

23

과목

이름에 'AI'가 든 수업
(우리 13 + 코드웨어 10)

14

과목

실무 수준의
결과물을 만드는
캡스톤디자인

첫 해부터 카메라와 포토샵을 만집니다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개론

방송미디어론

한국언론사

독서와토론 1·2

만들어보기

영상제작입문

멀티미디어제작기초

디지털미디어의글쓰기

AI활용미디어제작기초

미디어평글쓰기기초

전공 선택 후 ①: 취재하고, 진행하고, 찍습니다

저널리즘

뉴스작성기초 1·2

인터뷰실습

데이터저널리즘-캡스톤

취재보도실습 · 뉴스실습

탐사피쳐콘텐츠제작

방송·진행

미디어스피치와발표

방송진행실습 1·2

(MC·리포터·캐스터)

TV뉴스와 영상저널리즘

스튜디오 연출과 촬영

영상·다큐·사진

영상매체기초: 연출과 촬영

영상미학과비평

시사다큐와 비주얼스토리텔링

단편다큐멘터리제작-캡스톤

보도사진

전공 선택 후 ②: 쓰고, 분석하고, 설득합니다

글·스토리

미디어 평 글쓰기 기초
시놉시스구상 · 시나리오작성
단편 미디어스토리의
구상과 집필
AI와 논픽션스토리텔링

AI·데이터

AI와 뉴스의 미래
AI와 그래픽인포메이션
AI활용조사방법론
AI콘텐츠프로젝트
Digital Media, AI, and Society

전략·설득·산업

공공 설득의 전략과 기술
대통령과 언론: 이슈관리
미디어산업과정책
글로벌엔터테인먼트산업분석
Digital Marketing

AI는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수업 안에 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 스쿨 공통

AI와 뉴스의 미래
AI와 그래픽인포메이션
AI와 논픽션스토리텔링
AI스튜디오사진
AI활용조사방법론
AI콘텐츠프로젝트
AI활용 지역언론 콘텐츠 제작
AI와 미디어리터러시
AI활용 성찰적글쓰기
AI 미디어세미나
AI활용미디어제작기초
멀티미디어제작기초(AI포토샵)
Media Representation in the Age of AI
Digital Media, AI, and Society

코드쉐어로 열리는 과목

생성형AI활용 미디어프로그래밍
AI영상제작실습
AI그림책제작실습
AI Digital Graphic Design
AI UI/UX Design
대화형 AI서비스디자인
AI스마트미디어디자인
AI미디어사용자경험
AI와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
AI디지털리터러시: 즐거운 미디어생활

AI를 ‘나의 질문’을 가지고 배웁니다

공학의 질문

어떻게 하면
작동하게 만들까?

코드 · 모델 · 최적화

우리의 질문

이게 작동하면 사람과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효과 · 수용자 · 윤리 · 활용 · 비판

만드는 법은 소프트웨어학부가,

쓰고 읽고 따지는 법은 우리가!

Part III

어떻게 배우나요?

실습이 아니라 실전: 우리가 만든 기사는 세상을 바꿉니다!

한림미디어랩 The H

스쿨이 직접 운영하는
진짜 인터넷 언론
기자 출신 교수의 데스크을
거쳐 기사가 출고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의 정식 연재
코너에 수업에서 쓴 기사가
내 이름(기명)으로 게재

추적단 불꽃

탐사 보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추적단
불꽃' 활동을 시작

“더불어 미디어스쿨은 언론사 ‘오마이뉴스’와 연계를 맺고 있어서, (...) 현재까지 오마이뉴스에 총 5개의 기명 기사를 올렸다.” - 미디어스쿨 학생 전공평 중

현직의 프로들과 함께 만드는 수업

[기자협회보](#)[기자상](#)[기자연수](#)[협회소개](#)[협회활동](#)

학생들과 'AI 저널리즘 실험' 해보셨어요?

강원일보 기자들, 한림대 미디어스쿨과 공동기획
지역이슈 AI 활용해 온라인 기획물 6편 제작

김성후 선임기자 kshoo@journalist.or.kr 2025.06.30 17:30:58



이하늘 강원일보 기자는 지난 3월부터 한림대 미디어스쿨에서 ‘AI 활용 지역 언론 콘텐츠 제작’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6월까지 이어진 강의엔 강원일보 동료 홍지원·오석기·하위운·정운호·오현우 기자도 함께했다.

과목명: AI활용 지역언론 콘텐츠 제작 · 2025년 1학기 · 한국기자협회 보도

장비와 공간

TV 스튜디오 2곳

크로마키 · 프롬프터
보도데스크

1인미디어실 3곳

개인 방송 진행
영상 편집

사진 스튜디오

조명 · 촬영 실습

iMac실 · 그래픽실

파이널컷 · 어도비
SPSS

C.A.F.E

기획 · 회의 전용
창작 공간

언론고시반

언론사 준비
전용 스터디룸

비상제(飛上祭)

우리가 만드는 뉴스

[BISANGNEWS]
'누구나 아는'
공동현관 비밀번호

비상제 뉴스팀 취재 · 2:22

youtu.be/jivh69bEJhE

전국이 인정한 실력

KOSAC 영상콘텐츠
챌린지 전국대회
금상 (2024)

수상작 · 1:00

youtu.be/tMO9DG3g1gw

비상제 단편영화

‘디어 파더’
DEAR FATHER

티저 1:18 · 본편 28:29

youtu.be/UcEh9jqPFIk

모두 유튜브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채널에 있습니다

재학생의 목소리 ①: 실무의 밀도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이 타 대학의 미디어 학과와 다른 점은, 저학년 때부터 ‘영상제작입문’과 같은 실무 중심 강의를 배치하여 비교적 빠르게 제작 경험을 쌓고 기술적인 숙련도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스쿨의 전공 목표는 ‘현장중심 실무형 전문가 양성’이다. 신문 발간, 콘텐츠 제작의 주체가 되어 실제 미디어 산업현장 활동을 통해 취업 경쟁률과 진로 만족도를 높인다. ‘데이터저널리즘-캡스톤디자인’ 수업은 기자의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가 기사 작성을 배울 수 있다. 이 수업은 사회 문제를 포착한 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기사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사는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할 기회가 주어진다. 고등학교까지 교과서 문제 풀이에 집중하다 대학교 진학 후 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에 무척 흥분하며 그 어떤 수업보다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가족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나의 이름과 기사 제목을 검색해 본 순간에는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재학생의 목소리 ②: 포트폴리오가 쌓인다

미디어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실습 커리큘럼에 있다. 미디어스쿨은 온라인 언론 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실습 과목을 수강하면서 취재한 뉴스 기사를 실제로 게재할 수 있다. 더불어 미디어스쿨은 언론사 ‘오마이뉴스’와 연계를 맺고 있어서, 수준 높은 기사의 경우에는 오마이뉴스에 본인 이름으로 기사를 올릴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현재까지 오마이뉴스에 총 5개의 기명 기사를 올렸다. 미디어스쿨 졸업생들에 따르면, 이런 기록은 졸업 후 미디어 분야로 진출할 때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재학생의 목소리 ③: 넓은 커리큘럼, 진심인 교수님들

나 역시 콘텐츠에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커리큘럼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덕분에 어렵다고만 느껴졌던 AI 조사론, 뉴스 작성, 시사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수업을 거부감 없이 수강해 보았고, 내가 진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두 전공 간 학점을 교차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문적 확장이 매우 자유롭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은 미디어스쿨의 교수님들이다. 지난 3년 동안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느낀 점은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하신다는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해 불러주시려 노력하시고, 개인적인 메일 혹은 면담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수업의 질은 물론, 진로로 고민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시는 교수님들의 존재는 참 든든하다.

Part IV

그래서 졸업하고
뭘 하게 되나요?

숫자와 이름들

70.1%

미디어스쿨 취업률
(2025년 공시 기준)

졸업생이 일하는 곳

KBS · MBC · JTBC · YTN · 채널A
MBN · EBS · 세계일보 · 매일경제
카카오 · NHN · 제일기획 · 디즈니

KOSAC 영상콘텐츠챌린지 전국 금상(2024)

신춘문예 동시 당선 2인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동문

진로의 큰 방향

① 저널리즘 · 콘텐츠

세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닿게

기자 · PD
데이터저널리스트
크리에이터

② 광고 · PR · 마케팅

조직의 말을
세상에 통하게

광고기획
카피라이터 · PR
브랜드 · 콘텐츠 마케터

③ 플랫폼 · 테크

미디어가 흐르는
판을 설계하게

서비스 기획자
UX 리서처
Trust & Safety

④ 공공 · 연구

미디어의 규칙을
만들고 따지게

미디어 정책 · 심의
연구자 · 대학원(석·박사)

마무리하며

미디어스쿨에 진학하길 바라는 예비 대학생이 전공에 대해 묻는다면

5점 만점 중 4.5점의 학과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다.

입학 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수업과 즐거운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0.5점을 깎은 이유는,

주어진 기회는 모두에게 있지만 기회를 잡는 용기는 모두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을 본 누군가가 미디어스쿨 학생으로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풍부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든다면, 분명 5점짜리 전공이 될 것이다.